

VOL.30

2012 September

발행인 | 이인성 편집인 | 지구환경과학부 조교 발행처 | 지구환경과학부 지구환경과학사업단 <http://sees.snu.ac.kr>

CONTENTS

1면 SEES HEADLINE

- 지구환경과학부 신임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 글 | 10학번 김민아

6면 SEES PEOPLE

- 동문칼럼
 - "해냈다"란 기쁨을 느끼는 삶의 여정 - 이재중 교수
- 학생칼럼
 - 대학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 09학번 이보현
 - '나눔과 배려'로 1학기를 마무리하며 - 12학번 김미래
 - URP 후기 - 11학번 조형오

14면 SEES CULTURE

- SEE THROUGH SEES LOOKS!
 - 12학번 조혜정
- 정교수가 직접 만든 수업유머!
 - 정해진 교수
- 학생회 행사 · 공지사항
- 시로 읽는 지구환경
 - 이창복 교수
- PHOTO ZONE

20면 SEES INSIDE

- SEES News
 - 교수님 동정
 - 수상소식
 - 학생소식
 - 학부소식
- BK21사업단 News
- 연구소 News
 - 해양연구소
 - 대기환경연구소
- 학술대회 및 세미나
- 학사일정 / Quiz Quiz

“지구환경과학부 신임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가을, 지구환경과학부에 네 분의 새로운 교수님들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기분야의 손석우 교수님, 해양분야의 김종성 교수님과 최경식 교수님, 지구시스템분야의 김영희 교수님입니다. 지구환경과학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한, 우리 학생들이

신임교수님들께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선정하여 교수님들께 드렸는데요, 교수님들로부터 4인 4색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 | 10학번 김민아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즐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손석우 교수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손석우입니다. 대기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기과학과 (92학번)를 졸업하고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학위 후 도미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2년간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옮겨 세계적인 명문인 맥길대학교 (대기 해양과학과)에서 지난 4년 간 조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해서 현재 맥길대학교에도 지도 학생들과 연구원이 남아 있어 당분간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수님의 전공 연구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주 연구 분야는 제반의 대류권 역학과 대류권-성층권간 상호작용 그리고 극지 기후변화입니다. 향후 4~5년간 주로 대류권-성층권간 역학적 상호작용 및 북극에서 해빙 변화에 따른 대기 대순환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 학부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공부보다는 기타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군입대전까지는 (현역 만기전역) 학생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 후에는 문학회와 철학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기 중에서 가장 공부를 안할 것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 연구 외의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영화를 봅니다. 한때 영화 시나리오

——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교로 돌아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작가가 꿈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영화(특히 한국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 만약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마 영화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〇〇〇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북미에서 10년이상 살다 귀국하면서 생각해보니 한국 대학생들과 북미 대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상투적인데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대학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점입니다.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스펙만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안되는 일이라면 (취직과 관련된 일들)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여건이 각박해진 탓에 이러한 현상이 불

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즐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학부에서 받은 교육이 그 사람의 마지막 ‘Formal Education’이라면 그 짧은 시간동안 후회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생각하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교수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지구물리 (지진학) 전공입니다.

—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추억이 많은 교정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교수님의 전공 연구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

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서울대 / Caltech / LDEO, Columbia 대학에서 지진학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대에서 하고 싶은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primary goal of my research is to better image the structure of the earth's crust and mantle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physical and chemical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al geodynamic processes. Questions of particular interest include (i) the nature of tectonic processes involved in the buildup and subsequent modification of continental and oceanic lithosphere, and

(ii) *the determination of mineral and fluid-phase reactions in tectonically active regions.*

— 학부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 과목을 많이 듣고 3~4학년 때는 매년 다른 교수님 지도 아래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습니다. 학부때부터 박사 학위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초과학(물리/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구 물리는 비전공 과목 중 하나였고 나중에 전공을 물리에서 지구과학/지진학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인가요?

큰 고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에 갔었는데 문화적 차이가 크고 회화가 잘 안되어서 첫 1년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연구 외의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 외의 시간에는 4살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저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 연구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잘 못 푸는 스타일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

며 혼자 일을 하면 저절로 풀리기도 합니다.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학회장에서 (주로 연구를 하지 않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잘 안풀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스트레스가 크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 만약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사커맘 (soccer mom)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꿈이 훈들렸던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〇〇〇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학부때의 경험이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 받은 교육이 그 사람의 마지막 ‘Formal Education’이라면 그 짧은 시간동안 후회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생각하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과목도 공부해 보고 교수님, 조교, 선배들의 조언도 많이 받고 기회가 된다면 국내·해외 학회도 참석 해보세요. 다양한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자연과 바다의 소중함을 함께 고민하고, 그 무한한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에요.”



김종성 교수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9월부터 해양학 전공분야의 신임교원으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된 김종성입니다. 학부 때는 해양학을 공부했고, 석·박사 때는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에서 갯벌생태를 공부했어요. 최근에는 해양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합니다.

—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좋네요. 학부 때부터 캐나다 유학 떠날 때까지 12년간 지내던 곳이라 그런지 그냥 좋습니다. 뜰뜰한 후배들과 훌륭하신 은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자연과 바다의 소중함을 함께 고민하고, 그 무한한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기대되네요. 곧 만나기로 해요.

— 교수님의 전공 연구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바다생물이 이 혐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사는지, 뭘 먹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지, 급변하는 바다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예요. 요즘은 기후변화, 오염, 해양사고 등 인간의 사회경제적 개입에 의한 해양생물들의 다양성 훼손, 즉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구요. 요약하자면, 자연상태에서의 또는 외부환경 변화가 있을 때의 해양저서생태계 다양성(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부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물리적으로는 활씩(?) 가벼웠고, 화학적으로는 체내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았고, 지질적으로는 주로 뻘짓(?)을 많이 했고, 끝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글쎄요... 건강한(?) 편이었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놀기, 마시기, 돌아다니기, 먹기 등을 모두 좋아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후회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학창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인가요?

매 순간이 고비이자 기회란 생각이 드네요. 공부를 계속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혹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옛말로 하면 ‘한 우물’ 파라는 말이고 요즘 말로 하면 뭘 하든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자는 뜻입니다.

— 연구 외의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한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고, 내키면 잡자기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가봤자 주로 바다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많이 못 했던 운동을 꼭 하려고 해요. 제가 학부, 대학원 다닐 때는 농구나 축구 등 운동 모임이 꽤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 연구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물리적으로는 ‘스트레칭’, 화학적으로는 역시 가볍게 ‘한잔’, 지질적으로는 역시 ‘뻘짓’(참, 뻘짓이라 함은 갯벌에서 노는 것을 말함),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수다’가 좋습니다. ㅎㅎ

—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를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경식 교수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최경식이구요, 주전공은 천해 퇴적학입니다. 천해 퇴적학 외에도, 순 차층서학, 석유지질학, 제4기학, 고토양 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해양과학을 포함한 지구과학을 선도해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지질해양학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교수님의 전공 연구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해 퇴적학은 천해 및 해안선 부근의 물리적 퇴적공간에서 벌어지는 조류, 파도, 하천의 상호작용에 의한 퇴적작용과 해수면 변동에 의해 제어되는 퇴적환경의 시공간적인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향후 연구는 조수 퇴적시스템 내 요소들의 형태변동성과 이를 제어하는 수력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연근해 침·퇴적양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현생 및 고기 조수 퇴적시스템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수 퇴적층의 3차원 아키텍쳐를 복원하여, 유·가스전 개발에 필수적인 예측력 높은 불균질 저류층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 학부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고집이 세면서도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청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열을 깨닫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지구과학적 현상을 알아가는데 자그마한 희열을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인가요?

캐나다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캐나다 정부 표현으로는 ‘비자발적 별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역기러기’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 때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 연구 외의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출사를 나가기도 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미드를 즐겨 보기도 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 좋고 살짝 나쁜 남자가 주인공인 미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라던가 텍스터 등등...

— 꿈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세요?

한때 평생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꿈을 접고, 석유공사에 들어갔을 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재직 시 전 세계를 누비며, 유전확보의 최전선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퇴적학적 지식들이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문의 실용성을 체득하면서 내가 했던 연구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잠시 꿈이 흔들렸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오히려 학문의 깊이와 방향성을 재정립해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포기를 모르는 열정적인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과학은 참 매력적이고 도전할 분야가 많은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를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공의 선택을 단편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교수님, 대학원 선배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해냈다”란 기쁨을 느끼는 삶의 여정

이제중 교수 | University of Missouri

2012년 8월 1일. SEES Newsletter의 원고 청탁을 받고 마침내 글을 써보려고 앉아 생각해보니 한달 뒤면 미국에 온지 만 15년이 되는 날이네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걸쳐 가장 생동감 있게 살아왔던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나라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많은 선후배 동기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글을 쓴다는 게 외람되지만 제 경험과 생각을 후배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저희 세대나 지금 세대나 20대 대학시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 봅니다. ‘과연 내 전공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나의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 제가 입학하던 1988년도에는 선지원후시험제도였기 때문에 소위 “꽤 안보고 배팅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며 전공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구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질학을 선택함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질학이라는 한 우물만 판건 아니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지구물리학을 공부한 후 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박사과정은 토목공학과에서 공부했고, 박사후 과정에서는 화학과 소속으로 석유 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금은 다시 지구과학 분야로 돌아와 수리지질학과 지구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전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변화는 선택의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는 후회가 따릅니다. 저도 지난 15년간 여러 기회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몇번의 후회스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해준 힘은 바로 ‘성취’의 만족감, 즉 ‘해냈다’란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 ‘선택’, 그리고 ‘성취’ 이 세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석사과정에서 지구물리학을 공부할 당시엔 구체적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박사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은 지하공간과 관련된 연구가 특히 각광을 받던 때라 회사에서 그 분야 일을 하시던 선후배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석사논문 주제였던 토모그래피로 어떻게 직장을 잡아 일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 자신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공부를 한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지구물리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긴 했지만, 지하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공학적인 부분을 알면 더 좋겠다’란 생각을 하던 터라 기회가 되면 지하암반역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박사를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 당시 제 미래의 ‘꿈’은 정말로 ‘꿈’ 일 수밖에 없는,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만들자는 생각이 허황된 느낌이 들기도 하던 그때, 문득 ‘그럼 내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처음 교수란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학으로 바꿔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는 그 당시 분위기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학은 어떨까?’라는 고

선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는 후회가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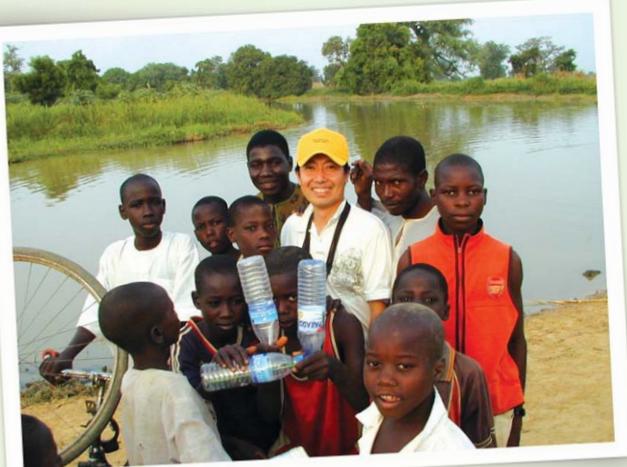
저도 지난 15년간 여러 기회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몇번의 후회스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해준 힘은 바로 ‘성취’의 만족감, 즉 ‘해냈다’ 란 느낌이라고 봅니다.

민을 그때 시작하게 되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적어도 5년을 투자해야 할 유학을 정말로 가야할 것인지 진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석사 졸업 후 1년간 유학 준비에 매달리게 되었지요.

유학 간 첫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공학의 기본이 전혀 없었고, 특히 토질역학 분야에 대한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박사과정의 수업을 들으려 하니 다른 친구들의 숙제를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꾸역꾸역 숙제를 마치면 새벽 5시였고 오전 8시 수업에 들어가려면 잠을 침대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아 의사나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생활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니 2년차부터는 어느 정도 내용을 쫓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잘 버텨서 박사학위를 받는 또 다른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교수가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박사로서 학계에 남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박사 후 첫 2년입니다. 그 시기의 논문 실적과 연구 성과가 다음 10년간 박사로서의 이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뜻하지 않게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간 곳에서 소위 연구실 내 ‘정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중요한 2년을 마음 고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되어 현재 근무하는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를 포함한 네 학교에 마지막으로 교수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다녀온 다음날 예전 지도교수님께서 추천서 요청이 왔다고 언질을 주시면서 미국지질학회의 중부지역 미팅을 그 학교에서 열 예정이니 가능하면 참가해서 교수들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사실 2년간 실적이 제 생각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갔고 다른 교수들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식 인터뷰 초청이 왔고, 마침내 2003년 처음 유학을 결정할 당시에 계획을 했던 교수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냈다” 란 성취의 기쁨이었지요.

인생이란 여정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종착역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 여러분께서도 불확실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기보다는 관점을 바꿔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 속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꿈꾸는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냈다’ 란 기쁨이 많은 삶. 그만큼 웃을 수 있는 삶일테니까요.



이제중 선배님은

1988	서울대 지질과학과 입학
1996	서울대 지구물리학 석사
2001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토목공학 박사
2001	University of Alabama-Tuscaloosa 박사후 연구원
2001 – 2003	Indiana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2003 – 2009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2009 – 現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2003 – 現	Director of Hydrolab,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학 생 칼 럼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 대학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



이보현 | 09학번

4년째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잘 찾아서 참여해도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1학년 2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학습 멘토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들은 ‘사회봉사2’ 인 스누버디 활동도 저의 대학생활을 보람차게 만들어준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중하고 유익했던 활동들은 고맙게도 제게 ‘사회봉사3’ 인 해외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면접을 거쳐 서울대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6월 27일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까지,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준비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 데다 9박 10일 간의 봉사활동 일정을 학생들이 알아서 짜야했거든요. 하지만 힘든 준비과정을 거쳐 도착한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느낀 바를 간단하게나마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점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활동을 함께한 팀원들로부터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이번 여름에 베트남 남딘 지역에서 9박 10일 동안 진행한 봉사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딘 고아원 및 장애아동 센터에서의 교육 및 노력봉사, 지역 마을회관에서의 의료 및 문화봉사, 호수 공원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지난한 주민의 집을 고쳐주는 노력봉사활동이 있었는데, 특히 장애아동 센터와 마을회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때는 많은 현지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장애아동 시설에서 봉사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베트남의 장애아동들을 마주했을 때는 경직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꼈는지 제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맡은 장애아동들은 2~4세의 아주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그림 그리기나 장난감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자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져 있던 표정에 미



소가 번졌을 때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래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의 경험 덕분에 며칠 뒤에 또 다른 장애아동 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줬고, 하루의 활동을 끝내고 헤어질 때는 눈물을 내비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장애 여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봉사자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아동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 외에도 제가 이번에 베트남 봉사활동을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유일 수도 있는 것은 바로 갑이 간 팀원들로부터 인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팀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먼저 나서서 물품을 나르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다른 팀원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생정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장애아동들을 안아주고 함께 진심으로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된 사랑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베트남 과자를 앞에 놓고 힘든 일을 토로하며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다가도 다음날 아침부터는 봉사활동에 열중하며 위기가 생겨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팀원들의 일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는 학업에 지친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지역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느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한 만큼 베트남에 가서는 좋은 팀워크를 보이면서 영원무역(후원기업)의 고마운 지원 아래에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일정을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 결과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방향으로 훌라가지 않더라도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좀 더 발전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 생 칼 럼

“나눔과 배려”로 1학기를 마무리하며



김미래 | 12학번

고등학교 때 과학반 활동을 했었다. 연구 활동도 하고 캠프도 갔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찾아가는 이동과학교실’이었다. 시외지역 분교 학생들이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간단한 실험에도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중에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후로 1년 반이 지나고,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슬슬 학교에 적응해가는 3월에 생활조에서 지하철투어를 갔다. 언니들과 얘기를 하다가 여름에 ‘과학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교 때 했었던 ‘찾아가는 이동과학교실’처럼 아이들도 만나고 과학도 가르칠 수 있는 행사라 해서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활조, 총액, 번액, 시험... 1학기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결국 과학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내가 가게 될 지역은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결정되었다.

8월 6일 오후

요즘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 엄청난 신선힘과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지금 가는 곳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전라북도라는 생각에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들떠있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안 숙소 앞에는 서해바다가, 저 멀리에는 새만금 간척지가 보였다. 내가 안 밟아본 땅 위에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8월 6일 저녁

우리가 가져온 빙초산 하나가 다 새어나오는 바람에 상자, 버스, 숙소에 빙초산 냄새가 진동했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다음 일이 걱정되기만 했다. 리허설도 안 해봤고 수업 자료도 제대로 못 봤는데 수업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실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밤에 다른 과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재미는 있었지만 잠들 때에는 걱정이 앞섰다.

8월 7일 아침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부안 바다를 산책하고 왔다. 걱정뿐이던 내 마음도 첫 수업을 하는 날 아침 날씨처럼 깽깽 맑아졌다. 평소에 챙겨먹지 않던 아침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두근두근 떨리는 첫 수업은 내가 맡게 되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수업 중에도 이름을 불러주려 애썼다. 자꾸 불러줘야 친근감도 생기고 더 쉽게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아서였다. 뭐만 나오면 ‘민망하다’는 말만 했던 은기,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니 웃는 진우와 태양이, 대답을 잘 해줬던 기정이... 귀엽기는 했지만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는 초등학생들을 상대하다보니 나도 획설수설했다. 그렇게 첫 수업을 마쳤다. 실험을 하면서도 뭐부터 해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정신없이 보냈다. 실험을 끝내고 나서는 둥글게 앉아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한 친구가 정신없는 게임이라고 안 좋게 얘기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다 보니 그 친구도 재밌게 참여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친구들도 적극적이었고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어줘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초등학생처럼 재밌게 놀았다.

8월 7일 오후

고등학교에 가서 멘토링을 했다. 1학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찾느라 고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반 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잊

고 있었던 내 고등학교 시절 고민들도 되살아났다. 수업에서처럼 횡설수설하며 한 시간을 보냈다. 멘토링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우리가 해준 말을 모두 다 기억하고 실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이 그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8월 8일 오후

수업 둘째 날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지만 매번 달라지는 아이들 덕에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었다. 수업 진행도 점점 익숙해졌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과학봉사 활동을 하면서, 낮에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생겼고, 밤에는 다른 과 친구들이 생겼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8월 9일 오후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에, 수업 첫날 오후에 만났던 초등학생 아이들 4명이 다시 찾아왔다. 수료증에, 자기가 만든 공기총에, 노트에, 수업자료집에 내 사인을 받아갔다. 그리고 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갔다. 설마 가기 전에는 주겠지 했는데 정말로 가져가버린 걸 알고는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기억하겠다고, 내년에 다시 오면 꼭 돌려주겠다고 가져간 것들이라서, 그 아이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은 좋았다. 그 친구들이 각자 사인도 하고 이름도 적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이름표도 만들어줬다. 4명의 친구들과 번호 교환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나중에 이미지 메이킹으로 판명됐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8월 9일 저녁

다 같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공놀이도 하고 파도도 뒹았다. 분명 수영을 배웠었는데 몸이 물에 뜨지를 않아서 물도 많이 먹었다. 부안에서 4일을 보내면서 다른 과 사람들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지환부 선배들, 동기들과도 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그 시간들이 고마웠다.

8월 10일 아침

바지락 죽으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내 생활도 주변 풍경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상은 전과는 다를 것 같다. 과학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가짐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받은 만큼,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더 넓은 곳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무엇을 얻어갔을까. '서울대학교'가 찍힌 수료증과 공부 방법이 적힌 몇 줄의 필기만이 아닐 것이다. 3일 동안의 수업과 이를 동안의 멘토링이, 초등학생들에게는 과학을 느끼고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분 좋은 뿌듯함으로 1학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



학 생 칼 럼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후기”



조형오 | 1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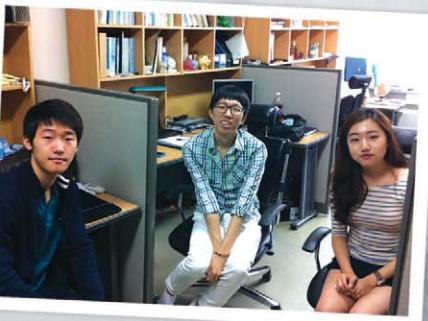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가족 여러분? 저는 11학번 학부생 2학년 조형오라고 합니다. 평소 즐겨 보던 SEES NEWSLETTER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무더위가 한창인 8월 두번째 주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10학번 남채현, 여희동 학생 3명은 500동 402A호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험실 인턴이냐고요? 음, 저희는 인턴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URP'라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 4월경, 학부사무실을 통해 한국창의재단에서 시행하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URP는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생이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지도교수님, 지도조교 1명, 학부생 3명 이상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구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140여 팀, 장기(11개월) 20여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기과학 분야에 흥미가 있는 여희동, 남채현 선배와 의논을 통해 '태풍'이라는 대략적인 주제를 정하고 허창희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단기 연구과제 부문으로 5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경까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저희 URP팀 이외에도 해양 분야에서 정해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산호의 백화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12학번 연구팀이 있습니다.

저희 URP 팀의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풍세기-재해대응 인프라 수준에 따른 피해규모 분석과 응용 연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태풍의 피해를 태풍세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힌 태풍들이 모두 중위도 지역까지 상승했던 태풍들이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비교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중국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태풍 피해를 태풍의 세기는 물론 GDP, 인구,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입니다.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은 1학기 종강 직후부터 시작하였고, 되도록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기 전에 논문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학 동안에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실에서 자료 수집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연구실 팀 미팅에 참여하여 연구실 선배들의 주간보고를 보며 배우고, 저희의 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연구실 인턴과 비슷하지만, 팀을 이루어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1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학기 중보다 훨씬 바쁜 생활을 하게 되어서 정신없고 힘들 때도 있지만, 조금씩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아주 즐겁게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연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팀원들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요, 여희동 학생이 한국의 태풍피해, 지리정보 조사 및 분석, 남채현 학생이 일본의 태풍피해, 사회·경제적 요인 조사 및 분석,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컴퓨터 언어인 Fortran90을 이용하여 태풍 자료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학교에서만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직후인 6월 24일-30일에는 제주도의 국가태풍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태풍센터에 머물면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연구관님들께 조언도 얻으며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태풍예보의 생산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태풍정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국가태풍센터 방문 이외에도 7월 12일-13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기과학 관련 실험실과 함께하는 워크샵에 참가하였습니다. 워크샵에서는 기후물리 연구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던 이화여대의 기후 시스템 연구실과 함께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방법과 연구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연구실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7월 23일에는 국립 방재 연구원을 방문하였는데, 방재 분야에서는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풍수해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이치현 연구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희 연구의 진행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방재연구원에서도 태풍피해와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지만 저희의 연구만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부생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TCDIS라는 ‘태풍위원회 재해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움들을 받아 진행된 현재까지의 연구 경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 통계청에서 인구, 경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국가재난센터에서 태풍의 피해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한 피해를 당시의 화폐가치(인플레이션), GDP, 인구변화를 고려해서 표준화(Normalization)하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자료는 ‘JTWC’라는 미국태풍경보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Fortran을 이용하여 태풍 중심과 각 지역의 위·경도 차이가 5° 이내에 들게 되면 상륙한 태풍으로 간주하여 추출하였습니다. 상륙한 태풍들을 대상으로 풍속의 세제곱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널리 쓰이는 PDI(Power Dissipation Index)와 표준화한 태풍피해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세로 남은 방학 동안에는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꼭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학기 개강할 즈음에는 자신있게 저희의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죠? 모두들 의미 있는 방학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URP 팀이었습니다!



SEE THROUGH SEES LOOKS!

타짜 in 지존



〈12학번 조혜정〉

정교수가 직접 만든 수업유머!

거리

서울고속터미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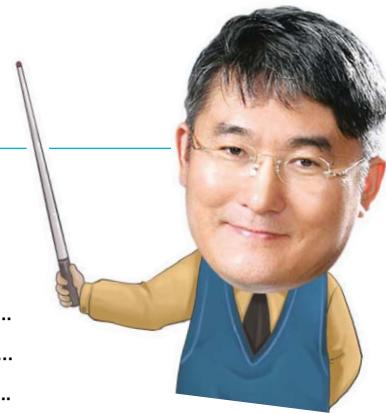
A : 여기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

B : 응.. 버스로 **한 정거장**...

A : 와! 그렇게 가까워? 걸어도 되겠네...

B : 걸어? 대전인데?...

- 한 말씀 더 :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고속)버스로 **한 정거장**...



효 자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불효자 : 아빠~ **돈**내세요...

우리가 **썼**잖아요...

- 한 말씀 더 : 지환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지은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걸리버 여행기'를 보여주며,

"(책) **지은이**가 누구죠?" 라고 물자,

철수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개미

만한 목소리로..

"제 여자친구인데요..."



천재 하루살이

아주 영리한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수성**으로 이사 가려구요"...

"갑자기 왜 그러냐?" 고 물었더니...

"수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보다 **176배**나 길거든요..." ...

- 유머의 교훈 : 수성에서는 하루를 살면 176일 동안 사는 셈...

그 하루살이... 나보다 영리하군...

동요

국민 동요 "아빠.. 힘내세요" ... 어려울 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효자와 불효자가 부르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학생회 공지사항

밴드동아리 “환청” 정기공연

지구환경과학부 밴드동아리 “환청”에서 2학기 정기공연을 합니다.

12학번 새내기 밴드들의 첫 공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일자 : 2012년 9월 14일(금)

- 장소 : 추후 공지

2012 지구환경과학부 추계 체육대회

이번 가을, 지구환경과학부 가족들의 축제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 일자 : 2012년 9월 21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사

*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WATS 강연

2학기에도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WATS강연이 계속됩니다. 9월에서 11월 매달 한 번씩 진행될 WATS강연에 많이 참석해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이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 학생회 선거

1년간의 12대 학생회 활동이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새롭게 2013년을 이끌어 갈 13대 학생회를 뽑는 선거가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환부 학부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려요.

* 학생회의 자세한 행사일정은 지환부 학생커뮤니티

<http://club.cyworld.com/snu-se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로 읽는 지구환경

몰운대행 没雲臺行

– 황동규 (1938~) –

1.

사람 피해 사람 속에서 혼자 서울에 남아
호프에 나가 젊은이들 속에 박혀 생맥주나 축내고
더위에 녹아내리는 추억들 위로
간신히 차양을 치다 말고
문득 생각한 것이 바로 무반주(無伴奏) 떠돌이.
폐광지대까지 설마 관광객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길들의 고요.
지도를 펴놓고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치고
방학에도 계속 나가던 연구실 문에 자물쇠 채우고
다음날 새벽 해뜨기 전 길을 나선다.

2.

영월 청령포를 조심히 피해 31번 국도를 탄다.
상동 칠랑에서 국도를 버리고
비포장 지방도로로 올라선다.
중석 걸러낸 크롬 엘로 물이
길 옆 시내 가득 흘러오고
저단 기어를 넣은 ‘프레스토’ 가
프레스토로 떤다.
차 고장 없기만을 길의 신(神)에 빌며
망초꽃이 모여선 길섶을 지나
아다지오로
덤프트럭 자국 깊이 파인 언덕을 오른다.
길의 신이 긁커브를 약간 풀어놓으며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보여준다.
크롬 엘로가 꿈결처럼 몸을 바꿔
흑인 영가로 흐르기 시작한다.
흑인 영가의 어두운 음을 끼고
에어컨 끄고도 혈떡이는 차를 천천히 몰아
온갖 생물학이 모여 썩고 있는 쓰레기 낫가리를 돋다.
아! 폐광 하나가 검은 입을 벌리고 비탈에 박혀 있다.
입술 위로 너와 지붕이 튀어나오고
그 위엔 다듬지 않은 풀들이

수염처럼 자라고 있다.

빠지고 남은 이빨처럼 녹슨 쇠기둥 두 개가 박혀 있고
녹슨 밀차 한 대가 굴 밖으로 나오려다 말고
뒤틀린 선로 위에 심드렁하게 서 있다.
들이밀면 머리부터 씹힐 것 같아
목을 웁츠리고 슬쩍 몸을 들이민다.
귀가 먹먹
아 사람 사라진 사람 냄새!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정확히 머리 위에 떨어진다.

3.

고개가 가파르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 봉안했다는 정암사 가는 길
그도 혈떡이며 넘었으리라.
앵앵대는 소형차를 길가에 그냥 내버리고 싶다.
가만, 자장이며 의상(義湘) 같은 쟁쟁한 거물들이
경주, 황용사, 부석사를 버리고
왜 강원도 산속을 방황했을까?

왜 자장은 강원도 산골에서 세상을 떴을까?
입적지(入寂地) 미상의 의상도
강원도 산골의 행렬병자가 아니었을까,
이곳 어디쯤에서?
가파른 언덕을 월칵 오르자
해발 1280m의 만항재.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이 서로 머리 맞댄 곳.
자글자글대는 엔진을 끄고 차를 내려 내려다보면
소나무와 전나무의 물결
가문비나무의 물결
사이사이로 비포장도로의 순살결.
저 날것,
도는 군침!
황룡사 9층탑과 63빌딩이

골짜기 저 밑에 처박혀 보이지 않는다.
 바람 없이도 마음이 온통 시원하다.
 잠시 목숨 잊고 험한 길 한번 마음놓고 차를 채찍질해
 정암사를 순식간에 지나서
 정선 쪽으로 차를 몰다.

4.
 화암 약수터 호텔 여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제철인 데다 벼섯 재배농가 회의로
 정선군 모든 방이 다 찼지요.
 몰운대 저녁노을이나 보시고
 밤도와 영월이나 평창으로 나가시죠.’
 표고버섯죽 한 그릇 비우고
 길을 나선다.

신선하고 기이한 뻥대
 저녁빛을 받아 얼굴들이 환했다.
 그 위에 환한 구름이 펼쳐진 길
 그 끝을 향해.

5.

몰운대는 꽃가루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엿보이는 그런 고요한 절벽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녁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가 하나 날다가 고개 돌려 수상타는 듯이 나를 쳐다보
 았습니다. 모기들이 이따금씩 쭉쭉 침을 놓았습니다.
 (날 것이니 침을 놓지!)
 온몸이 젖어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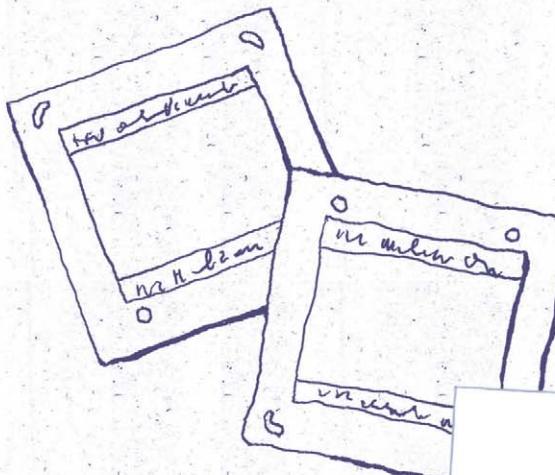


오늘은 조금 긴 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문과 명예교수이신 활동규 교수께서 1980년대 말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대를 거쳐 정선의 몰운대로 여행한 노정을 시로 표현한 여행시입니다.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일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광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캐낸 무연탄으로 만든 ‘구공탄’ 또는 ‘십구공탄’은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가정의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난방과 취사를 거의 전담했지요. 80년대 들어 그 역할이 석유와 가스로 넘어감에 따라 석탄을 캐는 광업은 사양 산업이 되고,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록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번창했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 지질학도들의 성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고, 정암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신라시대부터의 고찰이며, 몰운대와 화암약수는 정선팔경(또는 화암팔경)의 하나로서 멋진 경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가 발표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이 오지에서도 거의 모든 길이 포장되어 비포장도로의 “순살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이창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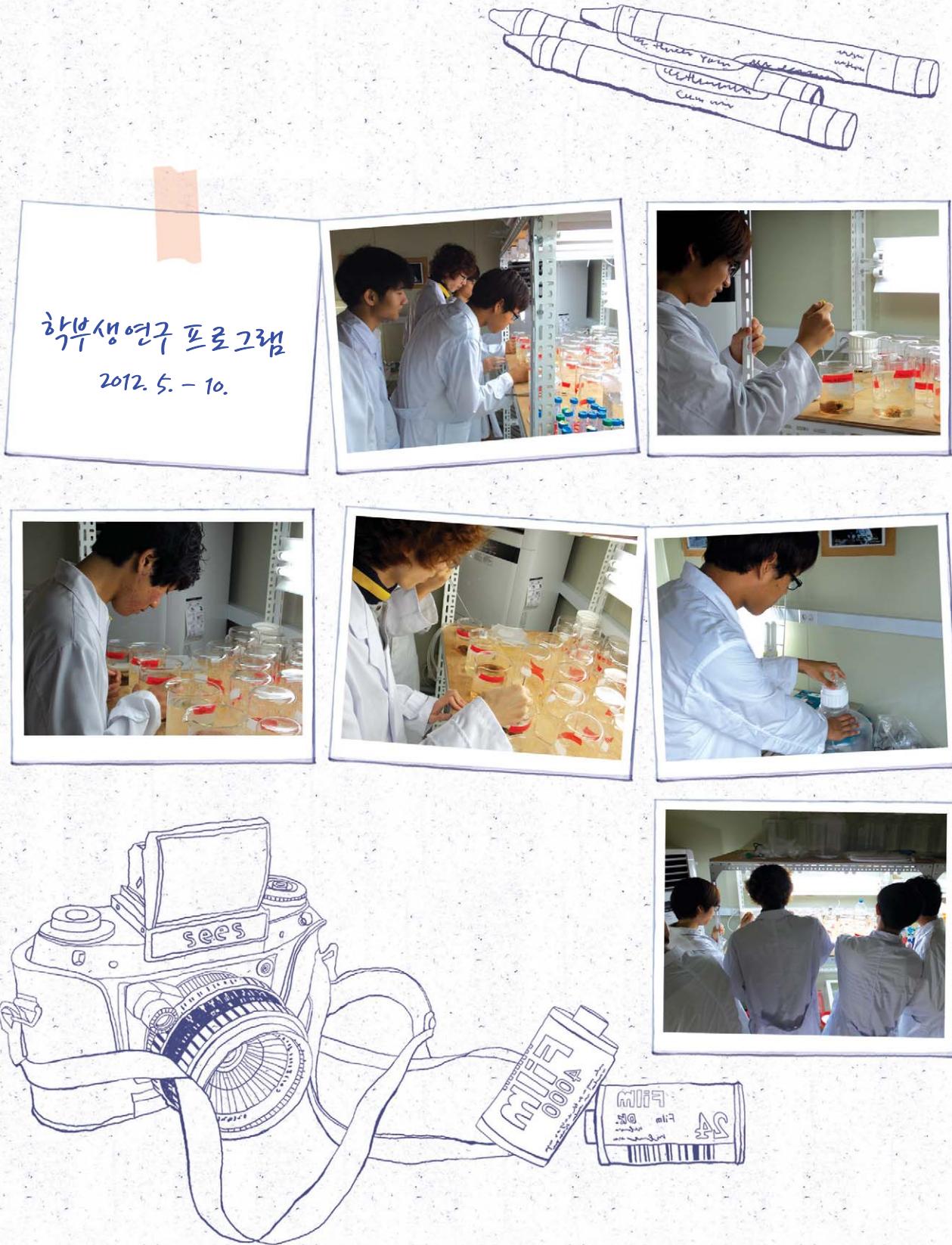
Photo Zone

자연과학 체험 교육
2012. 7. 18 - 20



교내 풍물 시연
2012. 8. 6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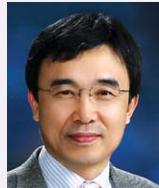


SEES 소식

S · E · E · S · N · E · W · S

■ 교수님 동정

· 조문섭 교수, 미국지질학회 석학회원(GSA Fellow) 선임



조문섭 교수님께서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압(-초고압) 대륙충돌대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를 비롯해 Ca-각섬석 고용체의 고온-고압 상평형, 변성광물의 공생관계 및 이들 광물이 지나는 지구조적 의미에 대한 연구 등 여러 공로를 인정 받아 2012년도 미국지질학회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학자로는 최초로 선출되었기에 그 의미가 크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초 미국지질학회 연례 학술총회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문섭 교수님은 현재 미국지질학회지(Bulletin of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 및 영국지질학회지(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London)의 주제별 편집장(Subject Editor)으로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 정해진 교수, 자연과학대학 연구대상 수상



정해진 교수님께서 자연과학대학 연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 정해진 교수, PNAS (미국국립과학원회보) 논문 발표

정해진 교수님과 BK21 지구환경과학부사업단 유영두 박사가 주도한 'Heterotrophic feeding as a newly identified survival strategy of the dinoflagellate *Symbiodinium*'이라는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PNAS)에 2012년 7월 30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 김덕진 교수, 부교수 승진



김덕진 교수님께서 2012년 9월 1일자로 조 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셨습니다.

· 김수진 명예교수, 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 선출



김수진 명예교수님께서 7월 13일자로 제 34대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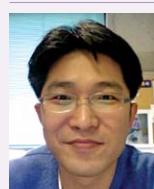
· 신임 교수 임용

9월 1일자로 네 분의 교수님께서 임용되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수명	세부전공	최종학력
김영희	지구물리 박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김종성 해양저서
생태학 서울대학교
박사



손석우 대기역학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박사



최경식 지질해양학
및 퇴적학 서울대학교
박사

SEES 소식

S · E · E · S · N · E · W · S

■ 수상소식

· 유영희 박사, 자연대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



유영희 박사(대류/도시기상연구실, 지도교수: 백종진, 2012년 8월 졸업)가 “Urban impacts on local circulation and air quality” 논문으로 2011학년도 후기 자연과학대학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우수한 자연과학대학 박사학위 졸업생 배출에 기여하고자 당해 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가운데 최우수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을 선별하는 상입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강남선 · 이유수 · 조형미 학생,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생 선정

강남선 · 이유수 · 조형미 학생이 2012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초학문분야 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초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름 | 세부전공 | 지도교수



강남선 생태 · 바이오에너지융합 정해진



이유수 지구물질과학 이성근



조형미 환경 · 해양생지화학 김규범

· 박태원 · 유영두 박사,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외연수 장학생 선정
박태원, 유영두 박사가 한국연구재단(NRF)이 지원하는 ‘2012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중 박사후 국외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름	연구실(졸업년월)	지도교수	연수기관
박태원	기후물리 (2010년 8월 졸업)	허창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유영두	생태바이오 에너지융합	정해진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2011년 8월 졸업)		UC, San Diego USA

■ 동문소식

· 서정훈 박사, 인하대 조교수 임용



서정훈 박사(2007년 8월 석사 졸업, 지도교수: 이인성)가 2012년 9월 1일자로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윤대옥 박사, 충북대학교 조교수 임용



윤대옥 박사(2006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최우갑)가 2012년 9월 1일자로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정지훈 박사, 전남대학교 조교수 임용



정지훈 박사(2005년 8월 졸업, 지도교수: 허창희)가 2012년 8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SEES 소식

S · E · E · S · N · E · W · S

· 차동현 박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임용



차동현 박사(2009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이동규)가 2012년 8월 27일자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최혁재 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임용



최혁재 박사(2009년 2월 졸업, 지도교수: 강현중)가 2012년 8월 31일자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학부소식

· 제 4회 자연과학체험캠프 개최

지난 7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체험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 행 사 명 : 제 4회 자연과학체험캠프

- 일 자 : 2012년 7월 18일(수) - 20일(금)

- 장 소 : 25-1동 304호

- 대 상 : 총 40명

(학교장 추천 일반고 2학년생 수도권 20명, 지방권 20명)

BK21 소식

B · K · 2 · 1 · N · E · W · S

■ 국제협력경비 지원현황

우리사업단에서는 지난 1학기에 11명의 대학원생에게 총 11건(국제학술회의 8건, 해외연수 3건)의 국제협력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구환경과학사업단 2012년 1학기 국제협력지원〉

성명	지도교수	학회명	국가	기간	비고
이태구	강현중	Keystone Symposia - Nuclear Receptor Matrix: Reloaded	캐나다	2012. 4. 15 - 4. 20	학술회의
신지연	이강근	EGU General Assembly 2012	오스트리아	2012. 4. 22 - 4. 28	학술회의
정세진	이인성	Hiroshima University	일본	2012. 6. 11 - 8. 29	해외연수
한영철	허영숙	2012 Goldschmidt Conference	캐나다	2012. 6. 24 - 6. 29	학술회의
홍 발	최덕근	5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ilobites and their relatives TRILO 2012	체코	2012. 7. 1 - 7. 4	학술회의
임안숙	정해진	2012 ASLO Aquatic Science Meeting: Voyage of discovery	일본	2012. 7. 8 - 7. 13	학술회의
김은영	이상묵	University of Oregon	미국	2012. 7. 16 - 8. 12	해외연수
장현성	손병주	International Radiation Symposium 2012	독일	2012. 8. 6 - 8. 10	학술회의
곽경환	백종진	The Joint 8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Climate and AMS 10 th Symposium on the Urban Environment	아일랜드	2012. 8. 6 - 8. 10	학술회의
간 밧	백종진	The Joint 8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Climate and AMS 10 th Symposium on the Urban Environment	아일랜드	2012. 8. 6 - 8. 10	학술회의
이태규	이준기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2012. 8. 7 - 9. 10	해외연수

C 연구소 소식

I · N · S · T · I · T · U · T · E · N · E · W · S

■ 해양연구소

· 해양정책 최고과정

제 13기 해양정책 최고과정(2012년 2월 17일 – 2012년 7월 20일) 수료식이 아래와 같이 거행되었습니다.

- 행 사 명 : 제 13기 해양정책 최고과정 수료식
- 일 자 : 2012년 7월 20일(금) 저녁 6시 30분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
- 수료인원 : 총 99명



■ 대기환경연구소

· 학술회의개최

- 회의명 :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avy rainfall over East Asia: Observation and modeling at cloud-resolving scales
- 일자 : 2012년 9월 6일(목) – 2012년 9월 7일(금)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
- 책임교수 : 손병주 교수



C 학술대회 및 세미나

S · Y · M · P · O · S · I · U · M · & · S · E · M · I · N · A · R

■ 학술대회

· 2012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

- 일자 : 2012년 11월 1일(목) – 2일(금)
- 장소 : 대구 엑스코
- 학술발표분과 : 대기역학, 대기물리, 기후, 환경 및 응용기상, 기상기술
- 홈페이지 : www.komes.or.kr

· 2012 추계지질학회 연합학술발표대회

- 일자 : 2012년 10월 24일(수) – 27일(토)
- 장소 : 하이원 컨벤션 호텔 (강원도)
- 홈페이지 : www.mskorea.or.kr

■ 2012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자 : 2012년 11월 1일(목) – 2일(금)
- 장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홈페이지 : www.ksocean.or.kr

■ 초청강연 및 세미나

· 대기과학세미나

- 강연제목 : Infrared satellite remote sensing challenge and opportunity
- 연사 : Dr. Hung-Lung Huan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IMSS/SSEC)
- 일자 : 2012년 9월 14일(금) 14:00
- 장소 : 501동 504호 (세미나실)

학사일정

9월

03일(월)	제2학기 개강
03일(월) - 07일(금)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25일(화)	수업주수 1/4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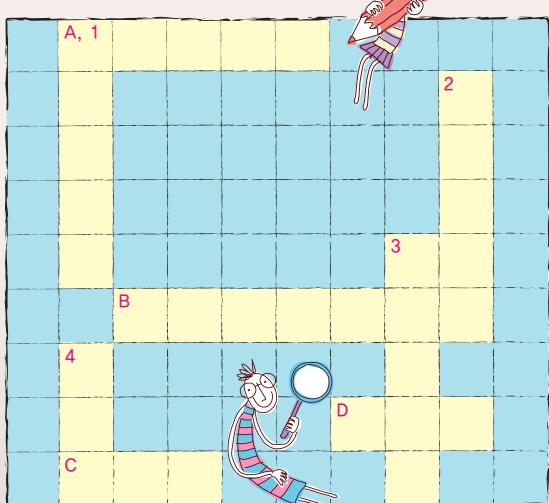
10월

15일(월)	개교기념일
24일(수)	수업주수 2/4선,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마감(1/2선)
25일(목) - 26일(금)	제2학기 자율학습일

11월

07일(수) - 13일(화)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20일(화)	수업주수 3/4선
27일(화) - 12월 14일(금)	2013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Quiz, Quiz!



가로

- A 이제중 교수님의 석사 논문 주제는?
- B 해양전공 김종성 교수님의 전공분야는?
- C 상륙한 태풍들을 대상으로 풍속의 세제곱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자수로 널리 쓰이는 것은?
- D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대를 거쳐 정선의 물운대로 여행한 노정을 시로 표현한 여행 시의 지은이는?

세로

- 1 이제중 교수님의 박사과정 전공은?
- 2 해양전공 최경식 교수님의 전공분야는?
- 3 해양전공 최경식 교수님께서 앞으로 연구하실 향후 연구 중 조수 퇴적시스템 내 요소들의 이것을 제어하는 수력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연근해 침·퇴적양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 4 한국창의재단에서 시행하는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생이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명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hyacinth1005@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1. A	코	리	B	아					C	고	
테				아					고		
판				용		2	과	학	철	학	
말				암					환		
라											
르				3 정	D 해		진				
메							양				
			4 돌	문	화	공	원				



지난 호 정답자는 박준희, 정민희, 이태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상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2012 September
SEES Newsletter

